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주일공동예배 후, 역할공동체별로 실행위원회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이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주도로 다녀옵니다.
- 서진솔 청년이 베트남 출장을 위해 20일(목) 출국합니다.

제 39 - 3 호

2022년 1월 16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다름과 상처가 있는 이상향, 코이노니아

멋쟁이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중학생 8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8명의 남학생들은 입학하기 전부터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지금의 공동주택에서 두 가정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대부분 교회에서 얼굴을 봐왔기에 어색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그 나이 또래가 그렇듯 여러 장난을 치며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각이 너무나 달랐고, 대개는 유쾌한 분위기였지만 때론 짜증과 신경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억하자면 어느덧 20년 전이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기는 4월 초 저녁, 갈등 관계가 처음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난 때였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바깥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한 학생이 평소에 쌓였던 불만을 붓물 터지듯 이야기했고, 다른 학생도 이에 질세라 자신이 평소에 그 학생에게 느꼈던 스트레스를 쏟아부었습니다. 현재는 목사님 사택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8명 밖에 안되는 데다 평소에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한 곳이었던 교회 터 안에서 그런 고함소리가 나면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귀 밝은 몇몇이 그 장면을 발견했고, 곧바로 방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랑 □□가 싸운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즉시 현장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전교생이 다 모이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6명이 둘러싸서 히죽이죽 웃으면서 흥미롭게 구경을 하고 있자, 둘의 다툼은 김이 다 새버렸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서 유야무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때의 관람객들은 이 사건을 “멋쟁이학교 최초의 다툼”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이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상관없이, 계기가 있다면 마음속 미움이 부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로의 다름과 미성숙함이 교차할 때, 내면에 대한 몰이해와 상황이 맞물릴 때, 덮고 갈 수도 있던 갈등은 상처로 남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건은 둘만의 과격한 피드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폭력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노끼는 바외
선교와 섬김

상대방의 모습을 서툴게나마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붙어지내던 환경에서, 서로가 말했던 부분을 신경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관계 대부분이 그렇듯,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갈등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서로의 성장과정에 있던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물건이 부딪쳐 흠집이 나듯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의든 아니든, 타인을 상처입히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간의 관계는 상처만 남는 것일까요?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달아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연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웃사랑이든 원수사랑이든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 상처나 아픔이 없는 이상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르면서도 연약함 하나만큼은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이겨먹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 부족함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잠을 자며, 말씀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상적인 친교를 '코이노니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간의 교제를 말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축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 또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친교를 맺읍시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름과 응답을 건네며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론 상처와 힘겨움을 얻겠지만, 살아갈 힘과 위로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서 산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하나 더 보내주셨노라고.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주님께서는
“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나? ”
하고 책망하셨다.
< 요나서 4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5장

제목 : 가정을 지킵시다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이어람 집사

찬송 : 314 342 365 300

1. 내용관찰(What)

- 1) 3~14 음녀
- 2) 15~19 부부
- 3) 1~2, 20~23 지혜롭지 못한 사람

2. 내용의 의미(Why)

- 1) 쾌락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다.
- 2) 부부는 서로가 깊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 3)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

3. 의미의 적용(How)

- 1) 부도덕한 상황을 잘 알아차리고 피하자.
- 2) 부부와 가정을 지켜 안정된 생활을 누리자.
- 3) 성적인 문란함을 피하여 바른 것과 좋은 것을 지켜나가자.

즐거운 추억들

공동생활에는 공동생산과 공동 분배의 경제원칙이 있다. 사랑방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시작의 단계였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이 없었다. 공동생활의 수입은 위원회에 속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목적헌금(심의 이조를 헌금하기로 함)과 교회 경상비(당시 교회의 재정 운영은 비상 체제로 공동생활비 지원은 4순위였다)에서의 지원이었다. 그러나 목적헌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 경상비에서의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첫 수입을 나누던 날이었다. 1998년 2월 4일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식구들을 모으고 돈을 분배했다. 그날 각 가정에 한 달 생활비로 똑같이 분배된 금액은 10만원이었는데, 돈을 받아 들고 모든 식구들이 환한 얼굴로 웃으며 기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생활비는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1999년에는 평균 25만원 정도였다. 공동생활을 하는 식구들은 10만원을 100만원이라고 웃으면서 말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체험하며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아토스 아저씨를 아시나요? 99년 봄으로 기억한다. 어떤 사람이 찾다고 하여 나가 보았다. 나를 찾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면 신학생들인데, 목회자도 신학생도 아니라고 하여 다소 긴장을 하였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후에 타고 온 아토스의 문을 열고 쌀을 다섯 포대를 내려놓고 갔다. 자신의 신상을 밝히려 하지 않아 지금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쌀이 떨어질 때가 되면 찾아와 지금은 여섯 포대씩 놓고 간다. 우리는 그분을 아토스를 타고 오는 아저씨하고 부른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은 물질을 나누는 삶의 모습이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고, 돈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목사는 아픈 교인을 보면 능력으로 고쳐 주고 싶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인을 보면 돈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큰 액수의 돈을 맡기면서 00가정의 빛을 갚도록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물론, 나는 전해주었는데, 나는 내 빛을 갚는 것 같은 고마움을 느꼈고, 내가 내 돈을 주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정태일 목사,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37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32 : 1, 5 인도자
302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나서 3 : 3- 4 : 4 설교자
278 사랑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잘 이해하기 원하오니
저희 눈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제국에 선 예언자.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 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 바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라는 큰 제국에 간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불순종하여 행동한 것 까지도 배려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 볼 때 이것은 큰 어려움이었으며 경험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 이시고 이끄셨습니다.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힘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안에 경험될 수 있는 은혜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놓치게 만듭니다. “나” 라는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꾸러기학교 졸업생들의 추억들

저는 2학년 되는 권하민 이에요

꾸러기에서 가장 행복했던건 여행하는 시간이었고,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졸업 여행때 친구들과 바다를 보면서 선생님들과 놀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꾸러기 다니면서 진짜 신나고 재미 있었어요. 우리들 세상 이였어요. ^^

기억에 남는것중 또 하나는 달리기가 엄청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느렸는데 밖에서 뛰다보니 엄청 빨라졌어요. 몸이 튼튼해져서 좋아요.

- 26기 졸업생 권하민

안녕하세요. 꾸러기 졸업생 박윤아 입니다.

꾸러기학교를 생각하면 비행기를 접고 신나게 날린 거, 인형을 그려 예쁘게 색칠해서 인형 만들었던 거, 블럭으로 집을 만들었고, 아빠 캠프 때 텐트 꾸미고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깥놀이 시간에 그네도 타고 얼음 땡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나는 이렇게 꾸러기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고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꾸러기 학교를 생각하면 언제나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25기 졸업생 박윤아

꾸러기학교에서 정락귀 선생님이 매일 미로를 그려주신게 기억나고 나도 따라서 그려봤는데 엄청 이상하게 그려져서 짜증났다. 그리고 7살 때 젓가락 연습 때 연습 안하고 가서 2번 정도 해보고 그냥 내 젓가락 방식으로 썼던 거 같다.

그리고 놀고 마지막에 치우는게 좀 많이 싫었던 것 같다. 아침에 축구 했는데 늦어서 거의 못했었다.

- 19기 졸업생 김재준

안녕하세요. 저는 꾸러기학교 졸업생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글을 부탁받아서 쓰게 되었지만, 흔치 않는 기회라 생각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먼저 저에게 꾸러기학교라는 존재는 참 소중한 추억이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꾸러기학교의 관한 것을 물어보신다면 딱 한 문장 "자유로운 곳" 이라는 문장이 떠오른 것 같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제게 꾸러기학교는 자유로운 날개와도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피식피식 터져 나오는 웃음과 선생님들의 따뜻함이 다시 옛 생각과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많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꾸러기 학교는 지금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우정과 관계에 첫 단추를 끼워준 곳인 것 같아요.

그때에 저는 마냥 철이 없고 생각 없이 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서 꾸러기학교가 그렇게 제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정말로 소중한 하나의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꾸러기학교에서 쌓은 추억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은 7살 졸업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많은 일을 겪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서 그려지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같지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컴컴해 지지만, 그때의 그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만큼 제게 꾸러기학교라는 장소는 많은 추억과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등 많은 것이 있으며 잊을 수 없는 감사한 곳입니다.

- 17기 졸업생 박세은

코로나 시대 때문인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딸린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드물다. 보통은 학습용 영상을 틀어주거나 재우는 것이 전부다.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놀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

모래사장에서 흙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도 하고, 아직 보조바퀴를 떼지 않았던 자전거를 몰고 교육관을 돌기도 하고, 큰 나무를 오르기도 했다.

보통 어린이집으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만큼 꾸러기는 매일이 즐겁고 새로웠다.

이젠 아득히 먼 곳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지만, 아직도 내 그림자의 끝이 어렸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만큼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 여태빈

무림리 식구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 얼마동안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에는 거의 나이가 많은 분들만 사셨는데, 20대인 우리와 어울릴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도 우리 생활에 바빠 이웃을 찾아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다 포천 고일리로 이사를 했고. 거기는 산 밑이라 아는 얼굴을 만나고 싶으면 일부러 찾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몇 번의 이사를 더 했지만 바쁜 생활에 옆집을 찾는 일은 자주 있을 수 없는 사치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곳이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참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의 집이었는데 참 삭막했어요. 아무리 인사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할 뿐 다시 핸드폰으로 눈을 돌리고 마는 엘리베이터 안. 이웃끼리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한가함이 없는 곳. -깨끗한 주차장, 깨끗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깨끗한 복도와 문들. 그렇지만 그 어느 곳도 함께 웃으며 짧은 수다라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공허감이 들곤 했어요. 정말 불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웃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림리로 이사 온 후에 생활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 방학 중이라 교회에서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휴가를 누리요. 이곳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영동씨가 건강해지는 일이지만, 기다리다 보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며 가끔 우울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녁에 불을 끄기 전에 뒷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앞집 옆집들의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찾아봐요. 누가 잠이 들었나. 누가 아직 깨어 있을까 -생각하며 얼굴들을 떠올려요. 모두 모두 평안한 밤을 기원하면 참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새벽에 자다 깰 때에도 한 번쯤 베란다 문을 열어 봐요. 그리고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을 보면 '일찍 일어났네요?'하고 마음 속으로 인사를 해요. 밤에 불을 끄면 정말 새까만-거실 창으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칠흙 같은 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 어둠에 눈이 익어지면 흑백사진처럼 창밖으로 능선이며 나무들이 보여요. 정말 창 하나가 커다란 액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이 너무 좋아 거실에 앉아 입 벌리고 바깥을 바라봐요.

작년 이맘때 만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무림리로의 이사.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무엇일까 기대가 되네요.

전경희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요나서 2장 2~9장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북한의 정부>

북한 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정부가 되도록 북한 땅에 평화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한결 공동체>

한결공동체가 다양한 사업과 활동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든든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역할공동체 실행위구성, 한국대안 교육기관 총회>

1) 이번주 역할공동체 실행위 구성원들이 잘 모이고 첫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2) 한국 대안교육 기관 총회가 대전에서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모임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강 추위가 찾아 온 한 주였습니다. 무림리에도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체 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선생님인 공동체 식구들은 외부 행사에 참여하면서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총회가 대전에서 열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졸업 여행 준비로 늦은 밤까지 어린이학교 선생님들은 회의에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공동체 식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더불어 정리와 새로운 준비로 꽉 채운 한 주였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